천진불 하모니로 빚은 어린이 포교 10년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창립 10주년 합창제 개최

11개 사찰 참여…음악회도
노래로 체득한 불교의 가르침
지속 가능한 포교 모델 모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에서 찬불가와 동요를 부르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열고, 지난 10년간 이어 온 어린이 포교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합창제는 지역 여러 사찰의 참여로 일군 어린이 포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연합회는 2월 8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열 번째 사랑, 빛으로 희망으로 온 천진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 지역 9개 사찰 합창단과 어린이 200여 명이 동참해 희망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참여 어린이를 격려하기 위해 회장 영산 스님과 총재 지현 스님,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포교부장 정무 스님,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미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객석을 메웠다.

합창제 오프닝 무대는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단의 '행복은 여기 지금'으로 시작됐다. 이어 부산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부산 혜원정사 혜원소년소녀합창단, 부산 무진선원 무진선재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청소년합창단, 울산 정토사 가람청소년합창단, 창원 정법사 문수선음합창단,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단, 창원 종문사 종소리소년소녀합창단, 김해 동림선원 은암어린이청소년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찬불가와 동요로 음성공양을 올렸다.

당초 참가 예정이었던 제주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은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참가 어린이 2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진 대합창이 펼쳐지며,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

이날 무진선원은 5년 연속 참여한 천진불에게 축하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연합회는 참여 어린이 전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창립 10주년은 어린이 포교의 이정표가 됐다. 연합회는 지도법사 교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재정과 인력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을 이어 왔다. 아이들은 10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보여 주며, 완성도와 집중도를 갖춘 합창으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총재 지현 스님은 연합회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순수한 마음과 노랫소리가 모여 큰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지금은 어린이인 단원들이 앞으로 청소년과 청년으로 성장해 사회를 밝히는 주역이 될 것이며, 합창단 활동이 가정과 사회, 나라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장 영산 스님은 "10년 전 어린이 포교의 길을 모색하며 첫발을 내디뎠던 당시를 돌아봤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도 합창을 매개로 어린이 포교의 연결고리를 이어 왔으며, 전국 사찰로 참여가 확대됐다"며 회고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어린이 합창과 찬불 활동을 통해 불교의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성장이 무대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2016년 4개 사찰 어린이합창단으로 출범해 현재는 11개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합창제를 개최해 왔으며, 음악캠프와 소규모 음악회 등을 병행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비대면 음악회와 가족 찬불가 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으로도 연합회는 합창과 음악을 매개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계사, 선명상 지도자 2급 과정 첫 수료

2월 9일 39명 수료자 배출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가 선명상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2급 자격과정을 개설해 36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조계사는 2월 9일 '선명상 지도자 2급 자격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스님과 조계사 종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과정은 선명상의 이론 이해부터 실제 지도에 필요한 수행 역량을 단계적으로 익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총 6회차로 진행됐으며, 선명상의 기본 철학과 수행, 상담적 접근을 균형 있게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과 홍순화 행복선명상센터장이 맡아 진행했다. 하림 스님은 선명상의 이론적 토대와 불교 경전에 기반한 수행 이해를 중심으로, 〈대념처경〉과 〈반야심경〉을 토대로 한 불교명상 이론과 상담이론 강의를 맡아 지도했다. 홍순화 센터장은 호흡 명상, 오감 명상, 몸느낌 명상 등 실습 중심의 선명상 수행을 이끌며 참가자들의 체험적 이해를 도왔다.

조계사는 "선명상 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개금종합복지관, 190세대에 명절 선물

15만원 상당 식료품 · 생필품



사단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11일 관내 지하 1층에서 '2026년 설 명절 정(情)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저소득 가정 190세대에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물품은 떡국떡과 식용유, 쌀 10kg, 주방세제, 강정, 죽, 물티슈 등으로, 세대당 15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지원됐다.

이번 나눔은 넥센월석문화재단, KB국민은행 기아대책,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진지역세무사회, 사단법인 미소원, 고려대학교 여성체육인회 등 지역 기관과 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1400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과 후원금이 모였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명절 나눔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베트남 땀쭉 사원, 불교 교류 업무협약

2월 6일, K-불교홍보관 개관식
수행 명상 중심 국제 교류 거점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응우옌 쑤언 쭝 땀쭉 사원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며 불교 문화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베트남 땀쭉 사원이 불교 수행과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양 사찰은 2월 6일 베트남 땀쭉 사원에서 K-불교홍보관 오픈식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불교 수행과 문화, 인적 교류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이어 가는 교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협약식은 땀쭉 사원 응우옌 쑤언 쭝 대표와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K-불교홍보관 컷팅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K-불교홍보관은 한국불교의 명상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이 정립해 온 선명상 수행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불교 명상의 핵심 내용을 베트남 현지에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방향을 반영해 오픈식 이후에는 정여 스님의 선기공 명상 체험과 고신가 명상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진행됐다.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땀쭉 사원은 베트남 정부의 관광특구 정책과 민간 투자가 결합된 대규모 불교 단지로, 최근 글로벌 관광·순례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공간에 K-불교홍보관이 마련된 것은 한국불교 수행과 명상 문화를 알리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어사와의 교류 역시 단발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템플스테이와 수행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기적 불교 교류를 염두에 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60~70km 떨어진 김방지역에 자리한 땀쭉 사원은 사찰과 자연경관, 관광 인프라를 아우르는 대규모 불교 관광단지로 조성됐다. 단지 내에는 삼세불궁과 관음전, 법주전, 옥탑 등 주요 전각이 조성돼 있으며,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져 수행과 관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2019년 유엔 베삭 세계불교행사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알려지며, 현재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불교 순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문홍법사·보현, '공양미 나눔' 협약

지역 내 취약계층에 배분



사찰에 모인 공양미를 지역 복지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나눔 모델이 부산에서 출발했다.

관음종 무문홍법사(주지 호명 스님)는 2월 9일 경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보현(이사장 정혜선)과 '공양미 나눔사찰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문홍법사는 사찰에 보시된 공양미를 보현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보현은 이를 지역 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공양미는 전문 복지기관을 통해 관리·배분된다.

호명 스님은 "공양은 사찰 안에 머무를 때보다 이웃의 삶으로 이어질 때 더욱 온전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호흡하는 실천 불교의 길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이사장은 "사찰의 보살행이 복지 현장에서 신뢰받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투명한 전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불교聯·금강자비회, 자비나눔 한마당

2월 10일, 학생 67명에 장학금
"불자 정성으로 미래 희망 밝혀"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와 금강자비회(이사장 진정혜)는 2월 10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5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열고 학생 67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3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장 법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자비나눔 한마당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리"라며 "오랜 시간 원력을 세워 나눔을 이어 온 불자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로 오늘의 장학금이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전해져 다시 세상에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임고문 원행 스님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종교의 역할과 나눔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며 "겨울을 견딘 매화가 향기를 내듯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혜 이사장은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꿈을 응원하는 마음"이라며 "받은 마음을 훗날 다시 사회에 나누는 따뜻한 인연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운 스님은 축사에서 "요익중생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삶"이라며 "오늘 행사는 보살행과 자비행의 실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연 창원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오랜 나눔의 전통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장학사업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며 학업 정진과 사회 환원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반야사 혜명 스님, 사회공헌 감사패 받아

2월 9일, 창원시청서 시상식
저소득 가정에 백미 기부 공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앞장서 온 혜명 스님(창원 화개산 반야사 주지)이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는 2월 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2025 이웃돕기 사회공헌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반야사 혜명 스님과 경문 스님,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호 희망복지팀장 등 기관 관계자와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배려와 사랑 덕분에 지난해 39억원의 기부금이 마련돼 8만3000여 가구에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어 준 모든 기부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소득 세대에 백미(10kg) 300포대를 기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혜명 스님은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 묵묵히 이어 온 나눔이 이렇게 큰 격려로 돌아온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도들과 지역사회의 동참이 있었기에 나눔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쌀 나눔을 꾸준히 이어 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지난해 기부와 나눔 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 6곳, 단체 5곳, 개인 15명을 유공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어르신 위한 마을 순회 공양

2월 한 달간 75명에 식사 대접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2월 한 달 동안 직접 지역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순회 공양을 개최하고 있다.

2월 11일 남해 봉화에서 열린 공양 행사에는 주지 승원 스님과 장충남 남해군수, 이상일 삼동면장, 김동수 화천이장, 이진우 양화금 이장, 최강환 내동천 이장 등이 참석해 화천·양화금·내동천 지역의 어르신 75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승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은 수행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함께 숨 쉬는 도량이어야 한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올리는 일 또한 수행이자 자비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멀리 절까지 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공양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앞으로도 마을을 찾아 공양과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공양을 마련해 주신 승원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자비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과 따뜻한 힘이 되고 있다"며 말했다.

용문사는 2월 6일 둔촌을 시작으로 지족, 금천, 삼화, 갈현, 화천, 양화금, 내동천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했고 이어 2월 27일까지 순회 공양을 이어 갈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